DISCOVER & LEAD

North Korea Business

북한 비즈니스

NK BIZ FORUM

중앙일보
삼정 KPMG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NK 비즈포럼

모시는 글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핵·미사일 공세로 긴장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반전을 맞았지만 완전한 평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분위기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한반도 번영의 시대'에 대한 기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최대의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는 남북관계의 종착점이 아니며, 최종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희망적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원로 자문단 일원으로 방북했을 때 우리 기업인들을 최 고 VIP로 대접하는 북한 인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구나'라 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엄청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스홀딩스 회장인 짐 로저스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대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남북경제협력, 이제는 현실입니다.

2018년 6월, 남북미 정상의 DMZ회동이 있었습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남북경협,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러한 막막한 질문 앞에서 삼정KPMG와 중앙일보가 '대북 비즈니스 교두보'가 되어 그 여정을 함께 하고자 〈NK비즈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커리큘럼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손에 잡히는 해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사업을 모색하는 기업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짊어지기보다 함께일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남북경협을 향한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겠지요. 모쪼록 이번 NK비즈포럼이 대북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준비를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북한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에

에너지 산업
- 에너지 정상화 없이 산업화 달성 불가
- 수력·화력·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ICT 산업
- 미성숙 무선통신시장의 성장 가능성
- 상대적으로 발전한 소프트웨어 수준

유통·소비재 산업
-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남측 제품 선호
- 생산과 소비시장으로의 기회

인프라 건설 산업
- 교통·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불가피
- 통일 한국 경제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관광 산업
- 금강산·백두산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 보유
- 인건비 저렴해 투자 대비 높은 수익 창출

자원 산업
-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 풍부하게 분포
-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매장량 세계적 수준

자동차 산업
- 인건비·지대 경쟁력 갖춰 생산기지로 활용
- 내수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으로 시장 확대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CEO의 선택

입학식/수료식

명사특강

경협포럼

NETWORKING & CONSULTING

NK 비즈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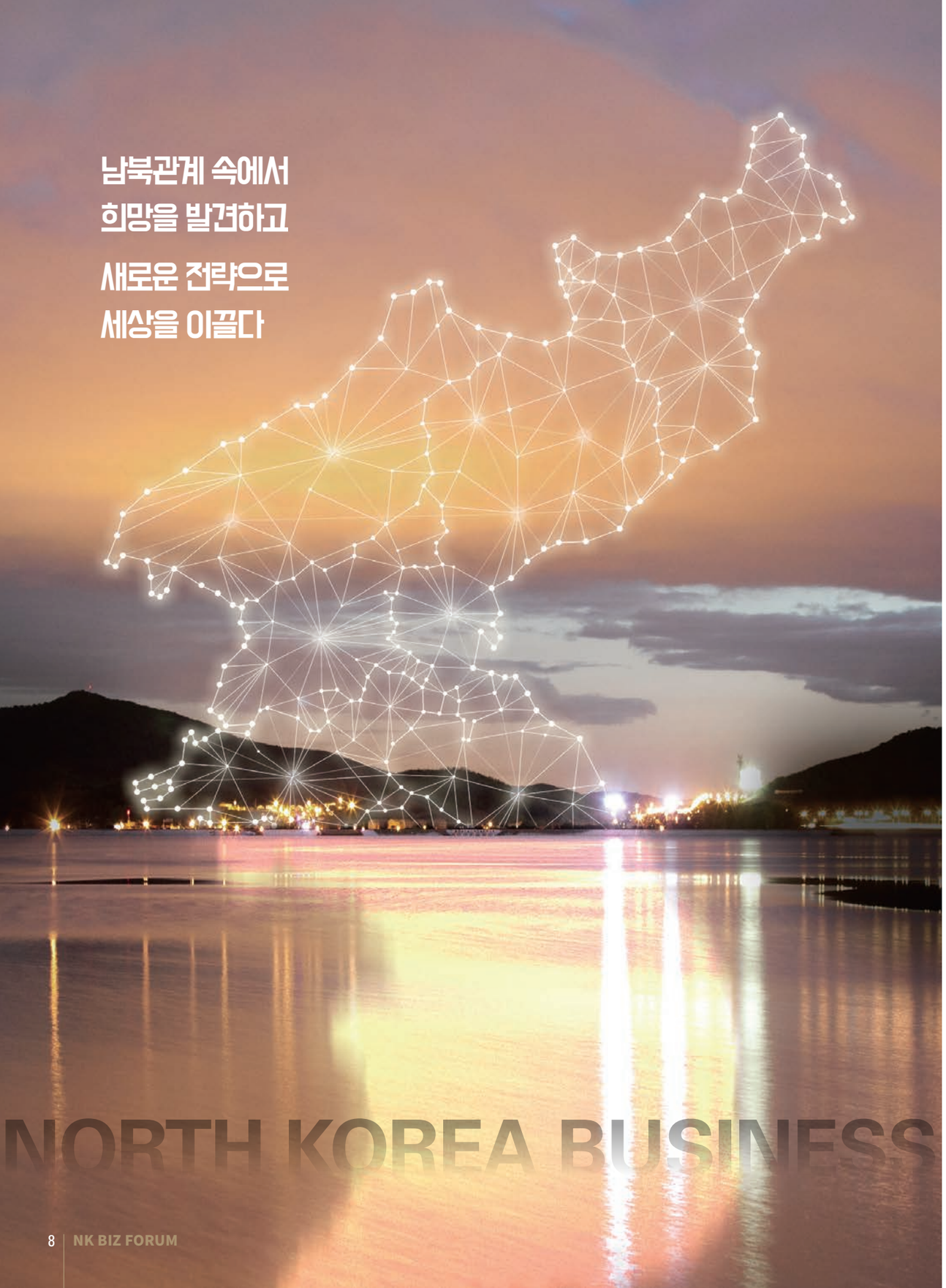
대북 진출을 고려중이거나 북한 경제,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기업체 CEO와 고위 임원, 로펌·회계법인 관계자 등 각 분야 VIP급 인사가 참여하는 중앙일보·삼정KPMG의 북한·통일 포럼입니다.

학문적 연구 영역을 뛰어넘어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북한 비즈니스 상황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NK비즈포럼의 최대 강점은 폭 넓은 네트워크입니다. 경제분야 외에도 북한 관련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매주 강연 뒤 참석자와 강사가 함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별도로 가집니다.

북한 진출을 함께 준비할 동반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상시적 네트워크를 쌓으실 수 있도록 원우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북 비즈니스 관련 기관·단체의 리더들이 원우로 참여했습니다.

수료 이후에도 북한 비즈니스 트렌드를 분석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세미나 및 조찬 특강 등을 개최해 관심 분야별 심화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대북 진출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URRICULUM

최고의 커리큘럼

- 북한·통일 분야에 독보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중앙일보·삼정KPMG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합니다. 중앙일보는 1972년 설립돼 4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통일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2014년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분야의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북한 진출 전략, 사업 타 당성 평가, 재원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북한 비즈니스 개발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와 삼정KPMG가 비즈니스 현장에 중심을 둔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관리합니다. 국내 최고의 북한·비즈니스 전문가는 물론 실제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을 강사로 모십니다.
-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눈높이에서 보는 대북진출과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매 강의는 쾌적한 호텔 환경에서 식사하신 뒤 진행합니다. 또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책자로 제공하던 텍스트와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중요 비즈니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 강사 강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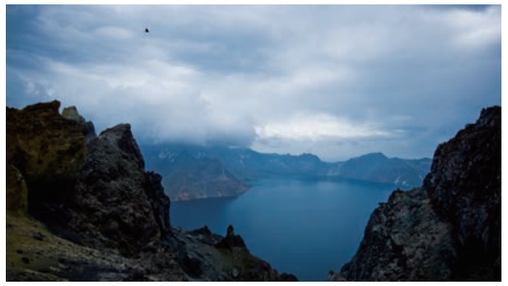
강사진	강의주제
강동완 동아대 교수	변경에서 본 북녘(북·중 접경 현장답사)
김광석 삼정KPMG 부대표	새로운 시장 북한, 투자처로 매력적인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장성택 금고지기가 말하는 북한의 외화벌이
김병연 서울대 교수	북한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시나리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협재개 전략
김영수 서강대 교수	장마당·핸드폰·택시로 살펴본 평양 자본주의
김정남 삼정KPMG 이사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바로보는 대북제재 : 현실과 해법
김효진 삼정KPMG 상무	북한 인프라·전력 분야의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
손석희 JTBC 사장	'서울·평양 이야기'(JTBC 방문)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열차는 왜 마라토너보다 느릴까
오청성 탈북군인	나는 왜 총탄 세례 속 판문점을 넘었나
유완영 SGI컨설팅 회장	대북사업 30년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들
윤영기 대도산업개발 회장	평양 대동강변에 내 점포 만들기
이종석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정은 시대 북한 건축의 특징과 대북진출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에서 본 대북 경제사업 전망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북한 투자법규 알아야 성공한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	국제기구 경험으로 본 대북 투자와 개발협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언제 열리나
최종문 UN유럽자원분류위원	북한 지하자원 '노다지' 인가
태영호 前영국주재 북한공사	평양 노동당 3층 서기실의 비밀
한기범 前국가정보원 1차장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

*해외 현장학습, 국내 워크숍·포럼 등 일정 진행

OVERSEAS TRAINING

고품격 해외연수

평화 오디세이



해외워크숍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

명품 브랜드 '평화 오디세이'

- 커리큘럼과 연계한 해외 현장방문을 통해 북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합니다.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 등 체제전환의 길을 앞서 걷고 있는 국가를 찾아 북한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기회를 드립니다.

- 중앙일보는 2015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인 '평화 오디세이'를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북·중 접경지역 1400km를 달린 '평화 오디세이 2015'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살펴보는 '평화 오디세이 2016'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 NK비즈포럼과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통해 한국 대표 지성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을 진행하며 열정과 에너지로 만들어낸 명품 브랜드 '평화 오디세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의 현지 특강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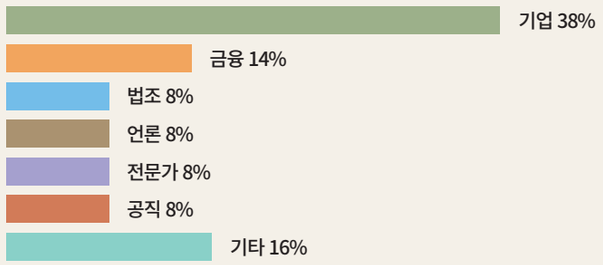
- 현지에서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인들과 네트워크 기회도 제공합니다. 특히 삼정KPM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154개국 197,000명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다국적 기업인들과 산업·서비스 등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 네트워킹과 최상의 지식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힘
NK비즈포럼 원우회 네트워크

원우회 활동

심화프로그램

원우 현황



North Korea Business

NK BIZ FORUM

사후지원

- 북한 비즈니스 전문가·사업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개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중앙일보와 삼정KPMG 그리고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 께 합니다.

- 중앙그룹·삼정KPMG·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진행하는 강연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분야별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일보-CSIS 포럼, 중앙일보-삼정KPMG 남북경제협력포럼, 한반도전략대화 등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발간물 제공

- 북한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NK비즈포럼 원우회

- NK비즈포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북한 비즈니스 관련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것입니다. 원우회는 끈끈한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총동문회, 골프대회 등 합동 이벤트를 통해 선·후배 원우 간의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원우들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삼정KPMG는 원우회와 함께 원우들의 관심 사업 컨설팅 및 분야별 심화학습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

차별화된 북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제공하는
NK비즈포럼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NK비즈포럼 특전

- 중앙그룹·삼정KPMG회장 명의 수료증
- NK비즈포럼 원우회 회원자격
- 중앙일보·삼정KPMG 및 원우회 주최의 특강 및 행사 참가
- 북한 비즈니스 관련 최신 정보 및 경험 공유 (월례 조찬강연, 분기별 세미나, 심포지움 등)
- 분야별 전문가·사업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개별 사업 컨설팅

**북한 경제 시찰단 방북 시 최우선적 참가,
북한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자문 등 지원**

모집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3월 12일 ~ 6월 18일
  국내워크숍 : 2020년 4월 17~18일
  해외워크숍 : 2020년 5월 22~25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30분(석식 제공)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수강대상** : CEO, 공기업 및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법조인, 회계사 등 전문직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20년 2월 28일까지
  ② 접수방법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하단 참조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수강료** : 600만원(VAT 별도 / 해외연수 별도)

문의

NK비즈포럼 사무국
· 전 화 : 02-751-5547, 5512
· 팩 스 : 02-751-5088
· 홈페이지 : nkbizforum.com
· 이 메 일 : nk-biz@joongang.co.kr

원우들 한마디

두만강에서 압록강 끝까지 1400km의 5일간의 여정은 나의 인생 62년 동안 접해 보지 못한 충격과 가슴 아린 시간의 연속이었다. 포럼의 동참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얕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과정을 마치며 나의 시각은 넓어졌다. 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하여 각 분야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봅시다. 그것이 대박인지? 쪽박인지?

박현일 (주)반도건설 대표

북한의 핵위협과 비핵화 협상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한일 무역갈등, 중러 군사도발…, 격랑이 한반도에서 요동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생존과 운명을 바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앙일보 통일연구소 NK 비즈포럼의 지혜와 정보, 네트워크가 실마리가 될 것이다. 북한,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NK 비즈포럼과 함께 하길 권한다.

변신건 신세계 그룹전략실 팀장

남북경협 30년의 노력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마주한 현실을 딛고 제대로 이해하며 대비해야 한다.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NK 비즈포럼은 북한 비즈니스의 차별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유승호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